

# 태도의 차원구조와 스트레스\*

이수원 · 장성수      김재환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태도의 차원구조가 그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여기서 태도의 차원구조는 태도의 두 차원 즉,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이 분화된 정도로서, 이 지표를 이용하여 두가지 실험을 하였다. 실험 I에서는 태도의 차원구조에서의 분화수준이 낮을수록 주어진 스트레스 자극을 판단할 때, 개인의 감정이 많이 개입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였다. 예컨대로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갈등처리에서 감정적 처리가 우세한 반면에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인지적 처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II에서는 앞 실험에서의 그같은 결과가 갈등 처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주어진 갈등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한 후의 스트레인의 크기가 현격하게 떨어져 의사결정 전에 가졌던 스트레인이 후에 까지 지속되지 않는 반면에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것이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갈등자극에 대한 감정적 처리와 인지적 처리양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개인의 태도의 차원구조가 그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Eysenck(1983)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물리학자 Hooke의 탄성의 법칙( $Stress = K \times Strain$ )에 따라 그림 1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그림에서 동일한 양의 스트레스( $\theta$ )라도 이에 대하여 느끼는 스트레인( $\alpha, \beta$ )은 개인의 감정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여기서 K는 유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양의 스트레스라도 유기체의 상태

에 따라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인은 차이가 있다.

그동안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주어진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이같은 유기체의 상태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지지(Cassel, 1976; LaRocco, House & French, 1980), 인지적 대처 방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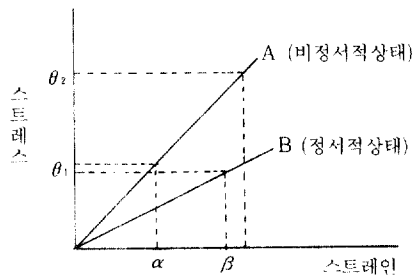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

\*본 연구는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및 1987년도 교내 정책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진행과정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본교 대학원의 구분용, 최병구 및 이영훈 군에게 감사드린다.

(Lazarus & Launier, 1978; Silver & Wortman, 1980), 내외통제부위(Johnson & Sarason, 1978; Lefcourt, 1981), 자적 자기의식(Mullen & Suls, 1982), 자기복잡성(Linville, 1987), 성격의 대담성(Kobasa, 1979) 및 성격의 유형(Eysenck, 1983; Chesney & Rosenman, 1983) 등이 모두 주어진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유기체의 상태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특정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유기체의 상태를 다루기 보다는 스트레스 일반을 완충하는 유기체의 상태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이들 연구가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지속적 정신체계인 성격을 다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은 스트레스에 상처받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사이의 성격상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는데 다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원인에 관하여는 비교적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실제로, 개인은 모든 스트레스 자극에 대하여 스트레스인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자극에 대하여 유독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한 개인마다 스트레스 자극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인을 매개하는 개인의 특성을 찾는 작업은 스트레스 자극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나 인지구조가 그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내적 변인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태도의 차원구조였다. 태도의 차원구조는 태도의 두 차원, 즉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로써 표현된다.

이수원과 신현숙(1986)은 Gamer와 Felfoldy(1970)가 제안한 차원간의 통합과 분화를 검증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태도에서 평가와 기술의 두 차원을 분리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평가와 기술차원의 분화수준을 조작하기 위해서 태도척도의 진술들을 이용하였다. 예컨대 대학생의 진로선택의 조건을 기술하는 네 가지 진술(순수하다, 안이하다, 불안하다, 순탄하다)이 있을

때 이들을 평가차원에서의 유사성에 따라 긍정적 진술(순수하다, 순탄하다)과 부정적 진술(안이하다, 불안하다)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또한 기술차원에서의 유사성에 따라 자기의 적성을 중시할 때 나타나는 진술(순수하다, 불안하다)과 사회적 진출을 중시할 때 나타나는 진술(순탄하다, 안이하다)로 분류할 수도 있다. 여기서 피험자에게 기술차원에서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시킬 때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분류하면 정답이 되지만, 만일 피험자가 적성중시나 사회진출중시 중 어느 한 입장에서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자기가 지지하는 입장에는 평가적으로 긍정적 진술들을, 자기가 반대하는 입장에는 부정적 진술들을 분류하려는 오류가 나타난다. 즉, 주어진 진술들을 기술차원에서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평가차원에서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의 분류의 특징은 기술차원이 평가차원에 의하여 혼잡된다는 것으로 이 혼잡의 양이 차원미분화의 지표가 된다.

여기서 미분화된 차원구조란 예컨데, '진로선택' 주제에서 자기적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긍정적(부정적)인 것이고 사회진출을 중시하는 입장은 부정적(긍정적)인 것이라고만 사고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이 수준에서 자기적성중시는 '긍정적'인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회진출중시는 '부정적'인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환언하면, 자기적성중시 - 사회진출중시의 기술차원과 긍정적 - 부정적인 평가차원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 아니며 서로 상관이 되어 하나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반면에 분화된 차원구조란 자기적성중시에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으며 또한 사회진출중시에도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사고하는 단계이다. 이때, 자기적성중시 - 사회진출중시의 기술차원과 긍정적 - 부정적 평가차원이 독립된 차원으로서의 존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대립된 두 가지 입장, 예컨데 자기적성과 사회진출에 대하여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볼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자기적성과 사회진출의 두 입장이 기술차원에서만 서로 대립하며 평가차원에서는 대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입장은 좋고, 후자의 입장은 나쁘다와

같은 감정적 대립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두 입장이 기술차원에서 뿐만아니라 평가차원에서도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두 입장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단일 진로선택을 놓고 자기적성중시와 사회진출중시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입장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 분화된 차원구조를 가진 사람은 인지적 수준에서 이 갈등을 수용하고 처리하는 반면에 미분화된 차원구조를 가진 사람은 이를 감정적 수준에서 수용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감정적 수준에서 대립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더 고조되기 쉽다. 왜냐하면 두 입장사이에 감정적 대립은 인지적 대립보다 이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감정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감정은 그 성질상 주관적인 것이다. 반면에 인지는 객관적인 것으로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은 인지보다 변화시키기 어렵다. 태도변화연구들에서 개인은 인지를 변화시킬 때 보다는 감정의 변화에 더 저항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Freedman, Sears & Carlsmith, 1978). 따라서 주어진 대립이 감정수준에서 야기될 때는 인지수준에서 야기될 때보다 그 대립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은 더욱 고조되며 또한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서로 대립하는 입장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 이 스트레스 자극을 감정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게 되면 보다 큰 스트레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주어진 갈등을 감정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보다 스트레스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의 양이 더 커지며 더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대학사회에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진로선택주제를 택하여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I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태도의 차원구조에서의 분화수준이 스트레스 자극을 감정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실험 II에서는 앞의 실험에서의 예상대로 미분화된 차원구

조에서 갈등을 보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같은 현상이 주어진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의 크기나 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보다 동일한 스트레스라도 그것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은 증폭되며,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 실험 I

이 실험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개인의 태도의 차원구조가 그 스트레스 자극의 처리양식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선택에서 자기적성을 따르느냐 사회진출을 따르느냐를 놓고 갈등을 할 때 이 갈등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느냐 혹은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를 밝히려 하였다. 실험의 가설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태도의 차원구조가 미분화될수록 주어진 스트레스 자극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며, 분화되어 갈수록 그 자극을 인지적으로 처리한다고 설정하였다.

## 방법

### 피험자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3학년과 4학년 학생 200명을 피험자로 사용하였다. 이들 중 남자와 여자는 반반씩 섞여 있었다. 피험자 중 응답의 누락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 최종분석에서는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태도 및 분화수준의 측정

여기에서 스트레스 자극으로 사용한 태도주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의 조건이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자기적성지(-3)부터 사회진출지(+3)까지의 7점척도에서 피험자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피험자의 태도의 분화수준을 측정하기위하여 사전에 자기적성지지와 사회진출지지를 각각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한 태도진출 41개를 제작하여 140명의 대학생을 피험자로 한 예비실험에서 각 진술의 기술치와 평가치를 측정하였다. 기술치는 주어진 진술이 사회

적 진출을 증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7)인지, 자신의 적성을 증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7)인지를 15점 동간 척도에서 측정하였으며, 평가치는 주어진 진술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7)인지, 바람직한 현상(+7)인지를 15점 동간척도에서 측정하였다. 이들 측정치를 근거로 기술치와 평가치의 평균이 0으로부터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진술을 자기의 적성에서 긍정적 진술(P<sup>+</sup>)과 부정적 진술(P<sup>-</sup>) 및 사회적 진출에서 긍정적 진술(A<sup>+</sup>)과 부정적 진술(A<sup>-</sup>) 각각 4개씩을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들 자료를 가지고 이수원과 신현숙(1986)이 제안한 직교차원분류 과제를 제작하였다. 이 과제는 태도진술의 평가와 기술의 두 차원이 서로 교차되도록하여 기술과 평가의 두 차원을 동시에 분리하여 지각할 수 있는 피험자만이 이 과제를 옳게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표 1의 P<sup>+</sup> 1개, P<sup>-</sup> 1개, A<sup>+</sup> 1개, A<sup>-</sup> 1개의 4개 진술로 만들어졌다. 예컨대, 이 과제는 잠재력을 발휘한다(P<sup>+</sup>), 학업에 흥미를 잃는다(A<sup>-</sup>),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다(P<sup>-</sup>), 경제적으로 안정된다(A<sup>+</sup>)의 4가지 진술을 주고 이들 중 자기의 적성을 증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 2개와 사회적 진출을 증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 2개를 고르게 하였다. 이같은 직교차원과제를 모두 16개 만들어 무선적으로 배열하여 제시하였다. 피험자의 차원분화 수준은 이 과제에서 범한 오답 수를 가지고 지표를 삼았다. 오답의 계산은 자기적성 진술들(P<sup>+</sup>, P<sup>-</sup>)과 사회진출 진술들(A<sup>+</sup>, A<sup>-</sup>)의 분류를 표 1에 나와있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답으로 간주하였다.

### 갈등장면에서 감정과 인지의 개입량 측정

갈등장면에서 감정과 인지의 상대적 개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실험에서 특별히 고안한 의미미분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의미미분법척도에서 양극을 규정할 때 사용한 형용사들을 앞서 제작한 것과 같은 태도진술들로 대체시켜 만들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태도진술은 자신의 적성을 긍정적으로 진술한 '순수하다'(P<sup>+</sup>), 부정적으로 진술한 '불안하다'(P<sup>-</sup>) 및 사회적 진출을 긍정적으로 진술한 '순탄하다'(A<sup>+</sup>), 부정적으로 진술한 '안이하다'(A<sup>-</sup>)의 4가지였다. 이들을 가지고 두 가지씩 짝을 지어 의미미분척도의 양극을 규정한 후, 이 척도에서 진로선택의 조건으로 제시한 '자기의 적성증시'와 '사회적 진출증시'의 두 가지 주제를 각각 평정토록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의미미분척도는 측정내용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감정척도로서 동일한 주제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진술과 부정적으로 표현한 진술들을 짝지은 것으로 자기적성 주제에 대한 척도는 불안하다(P<sup>-</sup>)—순수하다(P<sup>+</sup>)였으며, 사회진출증시 주제에 대한 척도는 안이하다(A<sup>-</sup>)—순탄하다(A<sup>+</sup>)였다. 둘째는 인지척도로서 감정은 일정한데 인지만이 서로 다른 진술들을 짝지은 것으로 순수하다(P<sup>+</sup>)—순탄하다(A<sup>+</sup>)와 불안하다(P<sup>-</sup>)—안이하다(A<sup>-</sup>)의 두 척도가 있다. 셋째는 감정—인지 복합척도로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긍정적이나 인지적으로는 부적절한 진술과 이와는 반대인 감정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인지적으로 적절한 진술의 두 진술을 짝지은 것으로, 자기적성주제

표 1.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진술들의 기술값과 평가값

		기술값		평가값			
P <sup>+</sup>	잠재능력을 발휘한다	4.29	2.73	A <sup>+</sup>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3.73	1.31
	대학생활이 보람있다	4.90	1.96		주위에서 인정받는다	-1.33	1.59
	삶이 주체적이 된다	5.08	3.37		사회적진출이 보장된다	-1.50	2.18
	인생설계가 가능하다	2.75	2.74		현실적응이 용이하다	-1.73	1.39
P <sup>-</sup>	부모기대에 어긋난다	3.56	-3.20	A <sup>-</sup>	학업에 흥미를 잃는다	-3.98	-1.00
	상래가 불안정하다	2.29	-1.92		정신적으로 각박하다	-2.30	-2.22
	사회적진출이 지연된다	3.08	-1.67		소외된 삶을 산다	-4.10	-2.43
	자기도취에 빠지게 된다	3.82	-1.08		삶이 세속적이 된다	-2.20	-1.49

는 불안하다(P<sup>-</sup>)—순탄하다(A<sup>+</sup>)에서, 그리고 사회진출주제에는 안이하다(A<sup>-</sup>)—순수하다(P<sup>+</sup>)에서 평정되었다.

따라서 감정과 인지의 개입량을 측정하는 척도의 종류는 자기적성과 사회진출의 각 주제별로 4개씩 8가지였다. 모든 척도는 의미분법의 방법에 따라 7점척도 상에서 평정되었다. 평정은 주제별로 따로 하였으며 각 주제내에서 척도의 배치순서는 무선적으로 하였다.

### 절차

실험의 진행은 일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처음 조사에서는 피험자의 태도와 분화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피험자들을 그들의 태도에 따라 진로선택의 조건으로 자기적성지지(-2 ~ -3), 중립(-1 ~ +1) 및 사회진출지지(+2 ~ +3)로 나누고, 또한 각 태도집단에서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고분화수준; 오류수 3개이하)과 낮은 집단(미분화수준; 오류수 4개이상)을 구분하였다. 일주후에 같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갈등장면에서의 감정 및 인지개입량을 알아보는 의미분법척도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집단적으로 하였는데, 집단을 둘로 나누어 즉, 자기적성주제를 먼저 받고난 뒤 이어서 사회진출주제를 받은 집단과 이와는 반대순서로 받은 집단으로 나누어 과제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상쇄시켰다.

### 결과

이 실험의 목적은 진로선택의 두 조건인 자기적성주제와 사회진출주제에 대한 평정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인지가 얼마나 개입되는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실험의 종속측정치는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감정과 인지 사이의 갈등의 결과로 나타내는 감정—인지 복합척도점수에서 감정척도의 점수를 제한 것으로, 이 점수는 감정과 인지 사이의 갈등장면에서 인지가 작용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 인지개입량 점수는 자기적성주제에서 불안하다(P<sup>-</sup>)—순탄하다(A<sup>+</sup>) 평정값에서 불안하다(P<sup>-</sup>)—순수하다(P<sup>+</sup>) 평정값을 뺀 점수와 사회진출주제에서 안이하다(A<sup>-</sup>)

—순수하다(P<sup>+</sup>) 평정값에서 안이하다(A<sup>-</sup>)—순탄하다(A<sup>+</sup>) 평정값을 뺀 점수를 합한 것으로서 점수가 클수록 인지가 작용한 정도가 큰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감정—인지 복합척도 점수에서 인지척도의 점수를 제한 것으로 이 점수는 감정과 인지사이의 갈등장면에서 감정이 작용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 감정개입량 점수는 자기적성주제에서 불안하다(P<sup>-</sup>)—순탄하다(A<sup>+</sup>)의 평정값에서 순수하다(P<sup>+</sup>)—순탄하다(A<sup>+</sup>)와 불안하다(P<sup>-</sup>)—안이하다(A<sup>-</sup>)의 두 평정값의 평균치를 뺀 점수와 사회진출주제에서 안이하다(A<sup>-</sup>)—순수하다(P<sup>+</sup>)의 평정값에서 순탄하다(A<sup>+</sup>)—순수하다(P<sup>+</sup>)와 안이하다(A<sup>-</sup>)—불안하다(P<sup>-</sup>)의 두 평정값의 평균치를 뺀 점수를 합한 것으로서 점수가 클수록 감정이 개입된 정도가 큰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점수를 태도와 분화수준별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에서 태도의 분화수준에 따라 감정개입량과 인지개입량에서 역전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2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분화된 차원구조

표 2. 태도와 분화수준에 따른 감정개입량과 인지개입량

		감정개입량	인지개입량
자기적성지지	고분화수준(n=37)	1.24(3.87)	1.80(2.31)
	미분화수준(n=17)	2.59(4.42)	1.23(2.46)
중립	고분화수준(n=54)	1.54(5.11)	1.73(3.10)
	미분화수준(n=47)	2.06(4.55)	1.76(3.02)
사회진출지지	고분화수준(n=18)	1.06(4.94)	1.83(2.81)
	미분화수준(n=22)	1.82(5.42)	1.18(2.70)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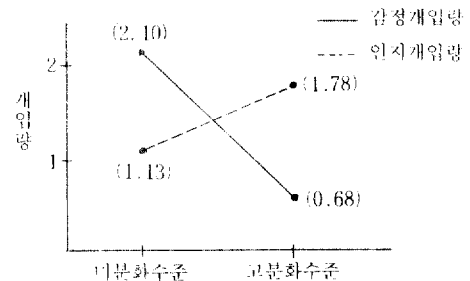


그림 2. 태도의 분화수준에 따른 감정개입량과 인지개입량

에서 감정개입량은 매우 크게 나온 반면에 인지개입량은 작게 나오며, 고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에 대한 변량분석결과도 분화수준(미분화와 고분화)과 개입양식(감정과 인지)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F(1,189)=4.77, p<.05$ ). 따라서 미분화된 차원구조일수록 주어진 갈등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며, 반면에 분화된 차원구조일수록 인지적으로 처리한다는 가설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림 2에서는 분화수준에 따라 감정개입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에 인지개입량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는 단순비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감정개입량에 대한 단순비교에서는 미분화수준이 고분화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으나( $F(1,189)=6.41, p<.05$ ) 인지개입량에 대한 단순비교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189)=1.32$ ). 따라서 분화수준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 지표는 아직 미지수로 남는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대체적인 추세는 예상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는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감정개입량과 인지개입량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  $r=-.53(p<.001)$ 이 나왔다. 이것은 감정개입량이 클 수록 인지개입량은 이와 비례하여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태도의 분화수준이 낮을 수록 감정개입량은 커지고 이와 반대로 인지개입량은 줄어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 분석에서 피험자의 태도에 따르는 추세는 어떤 것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개입량과 인지개입량에서 분화수준의 효과는 피험자의 태도와는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실험 II

이 실험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태도의 차원구조가 그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앞의 실험에서 태도의 차원구조가 미분화될 수록 갈등처리에서 감정의 개입량이 커지며, 이와 반대로 분화될 수록 인지의 개입량이 커진

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갈등처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식을 확인한 것으로써, 이 실험에서는 이같은 양식의 차이가 그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사건은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진로선택에서 자기의 적성을 따르느냐 아니면 사회적 진출을 따르느냐의 갈등이었다. 종속변인인 스트레인은 이 갈등으로부터 경험하는 고민의 양이었다. 여기서 고민의 양은 의사결정 전과 의사결정 후의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실험의 가설은 감정적인 갈등처리를 하는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보다 주어진 갈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의 양이 보다 클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 방법

### 피험자

이 실험의 피험자는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남학생 175명과 여학생 240명이었다. 피험자 중 실험 I 과 중복되는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전공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 중 9명은 응답에 누락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태도 및 분화수준의 측정

피험자의 태도측정은 진로선택의 조건에서 '전적으로 사회적 진출중시'(0)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적성중시'(10)의 11점척도에서 측정하였다. 분화수준의 측정은 실험 I 에서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8개의 문항으로 줄였다. 줄인 방법은 앞 실험에서는 표 1에 나와 있는 진술들이 문항 구성에서 4번씩 나오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2번씩만 나오도록 구성하였다. 다른 모든 절차는 실험 I 과 동일하였다.

### 갈등장면에서 스트레인의 측정

실험에서 다른 스트레인은 대학생의 진로선택에서 자기의 적성을 따르느냐 혹은 사회적 진출을 따르느냐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고민이었다. 여기서 스트레인은 의

사결정전과 의사결정후에 따로 측정하였다.

의사결정전에 느끼는 스트레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는데, 하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이 자기적 성이나 사회진출 중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올 때 느끼는 고민의 양을 평정시킨 것으로, 예시하면 '만일 부모님께서 당신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당신의 적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진출이 보장되는 직업을 택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오신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였다. 여기서 질문은 진로선택의 조건(자기적성과 사회진출) 2가지와 중요한 인물(부모와 학교선배) 2가지로 모두 4개였다.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두 인물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 즉, 자기적성과 사회진출을 동시에 권유해올 때 느끼는 고민의 양을 평정시킨 것으로 여기서는 중요한 두 인물(부모나 학교선배)의 역할을 변화시켜 2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질문에 대한 평정은 '전혀 고민이 안된다'(0)부터 '매우 고민이 크다'(10)까지의 11점 척도에서 이루어졌다. 이상 6개의 질문은 실험의 의도를 숨기고, 또한 제시순서 효과도 상쇄시키기 위하여 주제기 다른 20가지 질문들 속에 산발적으로 섞어 넣었다.

의사결정후에 오는 스트레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8가지 질문을 구성하였다.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부모와 학교선배)이 진로선택의 조건(자기적성과 사회진출) 중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도록 요구해올 때, 이 요구에 대한 의사결정(수락과 거부)을 하고 난 후 오는 후회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인물, 진로선택의 조건 및 의사결정의 방향 등 세 요소를 배합하여 모두 8가지 질문을 구성하였다. 예시하면, '만일 당신이 존경하는 대학선배가 대학을 졸업한 후 직업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진출보다는 자기의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유할 때 당신은 선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진출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짓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당신은 지금의 이 결정을 나중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리라고 보십니까?'였다. 이들 8개의 질문에 대한 평정은 '전혀 후회가 없다'(0)에서 '매우 후회가 클 것이다'(10)까지의 11점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이들 질문도 실험의 의도를 숨기기 위하여 주제기 다른 20가지 질문들 속에 산발적으로 섞어 넣었다.

## 절차

실험의 진행은 일주간격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처음 조사에서는 의사결정전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일주일 후에 같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후 스트레인을 먼저 측정하고 이어서 태도 및 분화수준을 측정하였다. 조사는 학교장면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제하지 않았다.

## 결과

이 실험의 종속측정치인 의사결정 전후의 스트레인의 양은 제시된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쳐서 산출하였다. 의사결정 전의 스트레인은 모두 6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내었으며, 의사결정 후의 스트레인도 8개의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내었다. 따라서 점수가 클수록 스트레인의 양도 큰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점수를 피험자의 분화수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여기서 태도의 분화수준의 구분은 고분화수준은 분류과제에서 오류수가 2개이하인 집단으로 하였으며, 미분화수준은 오류수가 3개이상인 집단으로 하였다. 표에서 피험자의 태도별 점수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사전 분석에서 의사결정전후의 스트레인량에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에서 보면 분화수준에 따른 스트레인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추세에 대한 변량분석결과도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F(1,402)=0.73$ ). 또한 의사결정전의 분

표 3. 성별과 분화수준에 따른 의사결정전·후의 스트레인량

		스트레인	
		의사결정전	의사결정후
남 자	미분화수준(n=74)	4.41(3.26)	4.63(2.80)
	고분화수준(n=98)	4.39(2.55)	3.98(2.32)
여 자	미분화수준(n=122)	4.52(2.88)	4.32(2.38)
	고분화수준(n=112)	4.98(2.54)	3.94(2.23)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화수준에 따른 스트레인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 $F(1, 402)=0.79$ ).

그러나 분화수준의 차이는 의사결정 시기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02)=6.65, p<.05$ ). 즉,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미분화수준에서는 의사결정 전과 후의 스트레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 $F(1, 402)=0.07$ ), 고분화수준에서는 의사결정 전보다 의사결정 후에 스트레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402)=14.56, p<.001$ ). 이 결과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미분화된 차원구조와 분화된 차원구조의 각각의 집단에서 의사결정 전 스트레인과 의사결정 후 스트레인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r=.51(p<.001)$ 이며,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r=.30(p<.001)$ 이 나왔다. 즉,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보다 의사결정 전에 가졌던 스트레인이 의사결정 후에 갖는 스트레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두 상관계수간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2.52, df=405,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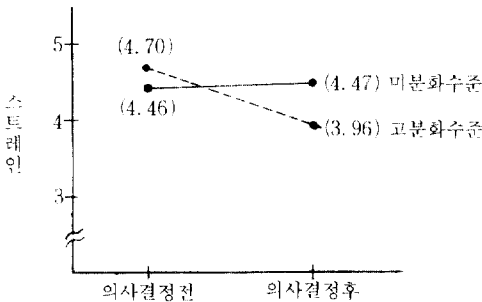


그림 3. 태도의 분화수준에 따른 의사결정전·후의 스트레인량

이렇게 볼 때, 고분화수준에서 의사결정 후에 스트레인의 양이 감소한 것은 의사결정 전에 가졌던 스트레인이 의사결정 후에 까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미분화수준에서 의사결정전의 스트레인이 후에서도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의사결정 전에 가졌던 스트레인이 후에 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결과에서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태도의 차원구조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 근거하여 두 가지 가정을 검토하였다. 먼저,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스트레스 자극을 감정적 수준에서 처리하는 반면에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를 인지적 수준에서 처리한다는 것으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보다 스트레스 자극의 처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이 보다 증폭될 것을 기대케 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그 성질상 주관적인 것으로서 인지보다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태도의 차원구조가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인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분화수준에 따른 스트레인의 절대량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분화수준의 효과는 의사결정시기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즉,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의사결정 전보다 의사결정 후에 오는 스트레인의 양이 보다 커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의사결정 전에 비하여 의사결정 후에는 스트레인의 양이 크게 적어지는 추세를 나타내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주어진 진로선택에 따른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에 대한 고민은 태도의 차원구조와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만 일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결정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두 집단에서 다르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즉,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결심전에 가졌던 고민이 결심후까지 연장되지만,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같은 고민이 결심후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의사결정전에 갖는 스트레인과 후에 갖는 스트레인사이의 상관관계를 낸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 상관관이 높은 반면에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즉, 전자에서는 결심전의 스트레인이 결심후에 까



지 영향을 주지만,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태도의 차원구조에 따른 스트레인에서의 이 같은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은 감정과 인지의 두 요인의 속성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감정은 개인의 사적인 것으로서 그 성질상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반면에 인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어떤 대상에 대하여는 어떤 인지를 가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인지가 잘못되었을 때 이를 변화시키는 것에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감정과 인지사이의 속성에서의 이 같은 차이가 의사결정 전과 후에서의 스트레인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감정적 수준에서 주어진 갈등을 처리하는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의사결정전에 가졌던 스트레인이 결정후에 까지 지속되는 반면에 갈등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이 같은 지속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태도의 차원구조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갖는 스트레인보다도 의사결정을 하고난 후에 오는 스트레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기존의 스트레스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Lazarus와 Folkman (1984)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신념이나 이에 대한 개입수준은 그 자극에 대한 사정(appraisal)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처음에는 태도의 차원구조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사정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그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도 달리 유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실험의 결과에서 그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태도의 차원구조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사정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주어진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인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이는 태도의 차원구조에서의 분화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전의 스트레인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의사결정 후에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태도의 차원구조는 주어진 갈등을 갈등으로서 수용하는 것을 막

는데 기여한다기 보다는 그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작용함으로써 그 갈등으로부터 유발하는 스트레인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태도의 차원구조가 어떻게 스트레스의 완충으로서의 기능을 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그 하나의 해답은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갈등상황에서 결심을 하기 전에 가졌던 고민을 결심한 후까지 연장시키지 않으므로써 이를 성취하고 있다. 사실 스트레스가 정신적 고통이나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결심을 하기 전에 받는 스트레인보다 결심을 한 후에 오는 스트레인에서 보다 심각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결심을 하기 전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한 방향으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해결이 된다. 그러나, 결심을 한 후에 받는 스트레스는 일단 일이 저질러진 후에 오는 것이므로 해결이 안된다. 따라서 그 스트레스는 지속적이며 반영구적이다. 또한 결심을 하기 전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수준에서 주어진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생산적이다. 그러나, 결심을 한 후에 오는 스트레스는 갈등 해결과는 무관하며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질환이나 고통에서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는 결심 후에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Festinger(1957)는 그의 인지불협이론에서 갈등문제의 핵심이 의사결정을 하고 난 후에 오는 스트레인(불협)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결정전의 스트레인이 결정후에 까지 지속되는 반면에, 분화된 차원구조에서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태도의 차원구조가 스트레스의 완충기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해 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태도의 차원구조가 분화될수록 의사결정 후에 오는 스트레인이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물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태도의 차원구조가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해답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태도의 차원구조는 스트레스 자극의 두 가지 함축된 의미 즉, 평가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를 얼마나 잘 변별해 내는가와 관련된다. 그 사이의 변별이 잘 안되어 주어진 자극의 기술적 의미를 판단시킬 때 평가적 의미가 이에 개입하게 되면 두 의미가 혼잡되어, 인지

적 변별을 해야하는 과제에서 개인의 감정이 작용하게 된다.

이 사실은 실험 I에서 태도의 차원구조가 미분화될수록 스트레스 자극의 판단에서 감정의 개입량은 커지는 반면에 인지의 개입량은 줄어든다는 결과를 통하여 잘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한 후에 경험하는 스트레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도의 차원구조가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어진 갈등을 처리할 때 평가차원과 기술차원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이를 인지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처리 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의 임상 및 상담심리학에서 나타나는 몇몇 연구들은 우리의 이같은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Ellis(1979) 및 Beck와 Hollon(1976)과 같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완충기제로써 개인의 인지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는 비적응적 사고의 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개인의 신념체계 특히,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이같은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이제 정서적 장애에 의하여 영향을 되받게 되어 신념과 정서가 상호순환적 관계를 갖게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는 개인의 신념체계를 바꿈으로써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주장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구조로서 태도의 차원구조를 탐구한 이 연구의 기본과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확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장면에서 피험자들의 의사결정이 실제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의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 조작은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것이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주제를 택하여 이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이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다른 주제

에 까지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이 점 또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유도되는 결론은 아직 유용적인 것으로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적 및 외적 타당도에 대한 보완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수원, 신현숙(1986), 태도의 차원구조;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5권3호, 181~192.
- Beck,A.T. & Hollon,S.D.(1976),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In K.J.Kendall. & S.D.Hollon(Eds.),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assel,J.C.(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 107~123
- Chesney, M.A., & Rosenman, R.H.(1983), Specificity in Stress Models: Examples Drawn from Type A Behavior, In C.L.Cooper(Ed.), *Stress Research: Issues for the Eighties*. John Wiley & Sons.
- Ellis, A.(1979), Rational-Emotive Therapy, In R.J.Corsimi(Ed.), *Current Psychotherapies*. Etasca publish.
- Eysenck,H.J.(1983), Stress Disease and Personality; The Inoculation Effect, In C.L. Cooper(ed), *Stress Research*, John Wiley & Sons.
- Festinger,L.(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onanc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 Freedman,J.L., Sears,D.O. & Carlsmith,J.M.(1978), *Social Psychology*, London; Prentice Hall.
- Garner,W.R. & Felfoldy,G.L.(1970), Integrity of stimulus dimensions in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processing, *Cognitive Psychology*, 1, 225~241.
- Johnson,J.H. & Sarason,I.G.(1978), Lif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moderator variab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2, 205~208.

- Kobasa, S.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LaRocco, J.M., House, J.S. & French, J.R.P. Jr. (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2~210.
- Lazarus, R.S. & Launier, R. (1978),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and environment. In L.A. Pervin & M. Lewis (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Lazarus, R.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
- Lefcourt, H.M. (1981), Locus of control and stressful life events. In B.S. Dohrenwend & B.P.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ir contexts*. New York; Prodist.
- Linville, P.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4, 663-676.
- Mullen, B. & Suls, J. (1982), "Know thyself": Stressful life changes and the ameliorative effect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43~55.
- Silver, R.L. & Wortman, C.B. (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 & M.E.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韓國臨床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87, Vol. 6, No. 1, 48~58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Attitude and Stress**

Soo-Won Lee and Sung-Soo Chang      Jae-Hwan Kim  
*Han Yang University      Han Yang University Hospital*

On the assumption that the structure of attitude is differentiated into descriptive and evaluative dimens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the degree of dimensional differentiation is mediated by the stress buffering effects. In experiment I, it was revealed that the lower the level of dimensional differentiation is, the more subject's affect is involved in conflict processing.

In experiment II, it was found that the more differentiated the structure of attitude, the less persisted the post decisional strain in conflict processing. It was interpreted that the degree of dimensional differentiation influenced the stressful stimuli more after decision making than did before.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affective and cognitive modes of conflict processing.